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http//www.mke.go.kr

문의 :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이경식 팀장, 박한서 서기관(2110-3862)

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

- 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확정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4월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(대금홀)에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함

○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발전 로드맵인 「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」을 수립 중이며,

* 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('10.9월)」에서 기본계획 수립 결정 및 「경제자유구역특별법」 개정('11.8월 발효)을 통해 수립 근거 마련

○ 금번 공청회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지자체(경자구역청), 학계, 연구계,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함

□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나선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였으나,

○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개혁 및 규제완화가 여전히 미흡하여, 일부 개발 부적합 곤란 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함

□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,

○ 규제완화 정책의 시험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적합 지구의 지정해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,

○ 국내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, 경제자유구역을 교육기관 및 R&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,

○ 성과평가 등을 통한 구역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발전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

○ 아울러,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특구의 총괄적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함

□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이어, 김상길 인천경자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, 최막중 서울대 교수,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,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

□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차를 맞아,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을 수요자 시각에서 되짚어 보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며,

○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차원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(안)을 마련하고,

○ 지자체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계획임을 밝힘

참고1 **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(안)**

1. 추진 배경

○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(용역 결과)에 대해 지자체(경자구역청), 학계, 연구계, 언론계 등의 의견 수렴

2. 행사 개요

○ 일시 및 장소 : 4.18(수) 15:00～17:00,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대금홀

○ 참석 : 지경부(경자단장 등), 6개 경자구역청, 학계·연구계 등 60여명

○ 세부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15:00～15:05	인사말씀	경자단장
15:05～15:30	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(용역 결과 발표)	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15:30～16:30	토론 – 인천경자구역청 김상길 기획조정본부장 – 국토연구원 류승한 연구위원 – 서울대 최막중 교수 – 동아일보 홍권희 논설위원	사회: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16:30～17:00	방청석 질의 응답	